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36호 [주제 제25379호] 주제 105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6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스페인 닉코방 송은 김정은위원장께서 대통장파수총합동장과 대동강폐지봉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중앙당장께서는 대동강파수총합동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50여 청원장과 함께 7개 민족이 당장과 대동강폐지봉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중앙당장께서는 대동강파수총합동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50여 청원장과 함께 7개 민족이 당장과 대동강폐지봉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그이께서는 출판보도물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선군절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불灭의 요새로 전변되었다.

조선인민제국주의의 미군과 당당히 맞서며 강성번영의 길로 힘차져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경지적인 면모로 전행되었다.

행사에는 혜당 나라의 각계 인사를 포함하여 한하고 지지하였다.

오스트리아 고 오스트리아 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청년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 신정부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이 당장, 내부간체스포츠선전위원회 일련의 행운에는 김정은은 경제에서 대동강파수총합동장을 현지지도하고자 했던 소식을 전하였다.

출판보도물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펼치고 있는 조선은 그 어떤 정세과 통에도 그늘이 뒤집어 전진 할 것이다하고 강조하였다.

선군절에 즐하여 로씨야의 인터넷통신에 토끼-에-웨이-웨이가 11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칭송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980년 8월 25일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의 혁명업적에 대한 토론회가 조국해방 71돐과 선군절에 즐하여 9월 말레이시아 맥

도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해방업적과 선군혁명업적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업적에 대한 토론회가 조국해방 71돐과 선군절에 즐하여 9월 말레이시아 맥

도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애의 마지막 기까지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였다.

통신은 회의 정회장의 손길에 우리 군대와 민인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경지적인

인민들이 흔쾌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애의 마지막 기까지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였다.

그들이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경지적인

인민들이 흔쾌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 틀를 이 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유품을 오늘

죽을 것처럼 그려온 어려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빛나게

탁월하고 세련된 병도로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역할을 미친다. 김정일동지의 영광은 조선의 선군절과 더불어 걸어 넣을 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의 첫 자속을 새기신 56돐과 조국해방 71돐과 즐하여 도시를 토록 했다.

도이 월란드-반체연단 위원장 미하

엘 코트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71년전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조국을 해방하는데 헌신되었던 1980년 8월 25일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의 청원장과 함께 105만평사단을 헌지지도하신 것은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시변이었다.

그때부터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기까지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였다.

통신은 회의 정회장의 손길에 우리 군대와 민인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경지적인

인민들이 흔쾌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애의 마지막 기까지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선군혁명의 혁명업적에 대한 토론회가 조국해방 71돐과 선군절에 즐하여 9월 말레이시아 맥

도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애의 마지막 기까지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였다.

그들이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경지적인

인민들이 흔쾌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 틀를 이 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유품을 오늘

죽을 것처럼 그려온 어려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빛나게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양구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루안다

양구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제 에두아르두 두스 쌈스스각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양구라인민해방운동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된 바에 대하여 열렬한 축복을 보냈다.

이번 대회에서 당선이 양구라인민해방운동 위원장으로 다시 선기된 것은 당선에 대한 귀 운동 전체 성원과 양구라인민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된다.

우리는 이 회의 반면 자주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떨어진 우리 귀 운동사의 풍랑한 혁명을 친선협력과 민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시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축실히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5(2016)년 8월 21일

평양

주제 105(2016)년 8월 21일

# 정론

##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군

우리는 배두산에서 조선의 영웅청년들에 대한 찬사를 쓴다.

이 나라 청춘들의 충성과 용맹, 헌신과 위훈으로 더욱 높아지고 승리해진 혁명의 성산,

참으로 의미심장한 화족이 여기 백두대지에 절쳐지고 있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저 하늘의 명을 따라가 짚은 가슴들에 말아주고 싶다고 하시면 그 뜨거운 정성으로 온 세상이 보관듯이 우뚝 세워주시는 영웅청년위훈기념비, 바로 거기에 공화국영웅대밭이 승용히 부각되고 있다.

백두대지에 짚은 영웅메달!

이 나라에 영웅은 많아도 백두대지에 영웅들을 암고 군상으로 서 있는 것은 오직 청년들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당이 조선청년들에게 안겨주는 최대의 감사,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청년대군을 거느린 조선의 영광과 인민의 공지가 여기에 있다.

대양의 축복속에 백두의 냄을 지닌 청년강국의 영웅대군으로 성장한 조선청년들이여,

가슴펴고 자랑하라. 우리 당과 인민이 부르는 청춘송, 시대가 주는 값높은 표창을 맘으시라.

그대를 500만 청춘의 이름은 영웅이다!

1

우리의 청년대표들이 모여왔다.

배두산프락에서 부터 세포트판에 이르는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철의 기지에 풍어 기념비는 어장과 산불농장의 포전에 이르는 무수한 혁명초소에서 영광의 대회장으로 달려온 우리의 대표들을 보라.

얼마나 하나같이 멋있고 풀풀한가.

위로는 빛나는 혼성과 바람을 번쩍이며 걸음도 씩씩하게 들어서는 그들에게 온 나라 인민이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천안국사를 뒤로 미루고 청년동맹대회 때마다 꾸준히 참석해온 우리 수령님, 사로청대회는 당대회 다음가는 큰 대회라고 하시며 차차 열리게 될 오늘의 대회까지 내다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시각과 산수대양전선에서 이 땅의 수백만 청년전위들에게 축복의 환한신 미소를 보내시는 것만 같다.

얼마나 환합없이, 뜻같이 오늘을 향해 달려왔던가.

미눈풀의 운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온 나라 인민이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지구를 목록처럼 풍공 풀리며 세상에 없는 것도 척척 만들어내는 속에 평범한 물질대원들이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하우아침에 데여난 영웅의 모습이고 오늘에 있고 해일에 사라지는 멀찌감은 인생이라면 우리 가슴이 이같이 적정에 설레이지 않으리라.

풀이보면 때 새대 영웅청년들이 피와 땀으로 쓴 자서전이 학처져 조국의 역사가 되고 인민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가 되었다.

우리 가슴뜨겁게 불어본다. 조국강산에 보석처럼 짚나는 영웅청년, 그 이름을.

맞다드는 영종현 시련과 난관을 빙 앞장에서 겪어헤버리는 미더울 대오앞에는 오늘도 감히, 차광수, 김진과 같은 열혈청년 혁명파들의 이름으로 공지높은 물격대기발이 나부끼고 나라의 인재들은 배움의 배움으로 더불어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온다.

항일의 혁전만화와 전국의 초행길을 지나 나파의 운명이 판가리되며 전화의 언역에 유포되자.

6 0 으로,

사람들이여, 아시는가. 세계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거꾸러뜨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배출된 그 많고 많은 영웅들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었다.

정년 천승의 축포가 그렇듯 눈물겹도록 아름다웠던 것은 바로 조국위해 아낌없이 투입된 열혈청년들의 피가 그려도 전하게 불어서가 아니었리라.

세상을 놀라운 조선의 천리마도, 사회주의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강국의 주인인 우리 청년들은 모두 영웅청년들입니다.』

영웅청년!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벅차오른다.

조국과 후손만대가 사랑하고 영원히 기역하는 참된 어국자, 짚나는 위훈의 창조자를 영용이라고 봐둔다.

그렇지만 피가 한 통이yle 끓어넘치는 열혈의 청년들이, 그것도 한두명이 아니라 500만을 이루는 청년들 모두가 영웅으로 시대의 각광을 맡고 있으니 조선청년들은 동시에 이같이 크나큰 사변이 언제 있어보였던가.

이것이 아말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배우산청년강국의 자랑스러운 면모이고 조선청년들에게 안겨주는 최대의 감사,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청년대군을 거느린 조선의 영광과 인민의 공지가 여기에 있다.

대양의 축복속에 백두의 냄을 지닌 청년강국의 영웅대군으로 성장한 조선청년들이여,

가슴펴고 자랑하라. 우리 당과 인민이 부르는 청춘송, 시대가 주는 값높은 표창을 맘으시라.

그대를 500만 청춘의 이름은 영웅이다!

우리의 청년대표들이 모여왔다.

배두산프락에서 부터 세포트판에 이르는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철의 기지에 풍어 기념비는 어장과 산불농장의 포전에 이르는 무수한 혁명초소에서 영광의 대회장으로 달려온 우리 대표들을 보라.

얼마나 하나같이 멋있고 풀풀한가.

위로는 빛나는 혼성과 바람을 번쩍이며 걸음도 씩씩하게 들어서는 그들에게 온 나라 인민이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천안국사를 뒤로 미루고 청년동맹대회 때마다 꾸준히 참석해온 우리 수령님, 사로청대회는 당대회 다음가는 큰 대회라고 하시며 차차 열리게 될 오늘의 대회까지 내다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시각과 산수대양전선에서 이 땅의 수백만 청년전위들에게 축복의 환한신 미소를 보내시는 것만 같다.

얼마나 환합없이, 뜻같이 오늘을 향해 달려왔던가.

미눈풀의 운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온 나라 인민이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국땅에 풍물대원들이 있고 그날은 우리 대두지역에 웅성지르는 청년들의 청춘시대를 풍물과 함께 맞이하는 청년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당장간 70돐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을 마련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호국선원으로는 영웅작전으로 결시로 위한 것도 다름아니 우리의 백두청춘들이었다.

#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200일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가자

##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공격 앞으로!

봉성이 끝난다.  
5개년 혁신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기기 위한 200일전투  
에서 매일 계획을 1.2배 이상  
으로 넘쳐 수행.

바로 이 성과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것은 영광의 일대에서 200일  
전투승리의 개거리를 넘어서 울릉  
기 위해 풍랑에 내달리는 봉성  
로동계급의 약동하는 기상이 합  
쳐져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 인 김일성·  
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  
의 해설부대, 나라의 맘마를  
답게 달인 사상과 위엄을 뻔  
앞장에서 밟을며 경제강국  
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의 봉성을 주력하고나가야  
합니다.』

200일전투기간 복창화력  
발전원합기연소, 평양화력발전  
원합기연소, 김책제철원합기연  
소, 천리마제 강연합기연소, 후  
남비료련합기연소, 2.8비남  
련합기연소, 단진치구평양중국,  
장진강발전소, 등 인민경제  
중요부문, 기업소들에 빌  
아들이고 무조건 조합행운이  
천세대 봉성로동계급의 투쟁전  
통이었다.

우리가 나갈 길은 당파  
수령의 요구라면 끝까지 제임으  
로 해나오는 오직 한길뿐입니다.』  
련합기연소 책임일군의 절절  
한 호소가 기술자들의 심장을  
울렸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  
르기로 모두가 용심의 명예를  
걸고 자력갱생의 무위주력을  
세계 쳐들었다.

드디어 7월 10일, 선군주  
청공장 유태원에서는 대치차소  
제생산을 위한 유도로들의 동시  
출강이 진행되었다. 며칠 만에  
새로운 사업과 협력하고 협동에  
힘입을 수 있는 사업조건  
이 어려운 속에서도 기본상식으로

### 봉성 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로는 상상할수 없는 기적을 창  
강용정에서 대치차이발을 협성  
할수 있는 새 기술을 창안하였  
던 것이다.

용해장을 불거 물들이 장폐원  
쇠불로, 어머니당을 반드시는 길에서  
인재나 총정의 자족만을 세운은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보통계 군은  
오늘의 200일전투에서도 이  
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  
키는 기적을 안아오고야 말았다.  
그뿐이 아니다.

선군압축기지장에서 태양열  
집열집광기 부문제작과 조립  
전후가 빨라질 때였다. 조립용  
김동일동무가 대단하게 새로운  
기술을 창안하여 풍전같으면  
3명이 해야 할 조립파게를 혼  
아들이고 무조건 조합행운이  
천세대 봉성로동계급의 투쟁전  
통이었다.

그러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흔하기에 앞서 그들의 기술을 세  
워두면 것은 무엇이었는가.  
당파 수령의 요구, 행정지시  
다면 언제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조합행운이  
천세대 봉성로동계급의 투쟁전  
통이었다.

우리가 나갈 길은 당파  
수령의 요구라면 끝까지 제임으  
로 해나오는 오직 한길뿐입니다.』  
련합기연소 책임일군의 절절  
한 호소가 기술자들의 심장을  
울렸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  
르기로 모두가 용심의 명예를  
걸고 자력갱생의 무위주력을  
세계 쳐들었다.



16시간동안에 끝낸 혁신적성  
과가 속보판을 죄울 때 1주장  
직장 주행 3작업반 주형공 김  
영철동무가 공정간 맞물림을  
놓고 들어 풍정양화력발전소의  
미투네치체소재생산을 위한 조  
직화제시간을 종결보다 3시간  
단축한 위훈이 200일전투기  
록장에 새겨졌다.

200일전투목표를 무조건  
당장전기념일까지 앞당겨 수행  
하자!

당에 대한 불리는 충정과 애국  
적현신으로 심장의 피를 떨擞 헤  
이며 풍성의 로동계급은 200일  
전투목표를 보낼 규격품 가공전후에서 풍전보다  
2.5배의 생산실적을 올려  
3일을 하루로 줄이었다.

장비종합직업연마공장 라미  
온동무가 지난 시기에는  
24시간이상 걸리던 암축기번  
판 90개에 대한 분야작업을

금 및 사진 현지보도반

### 총원철제 일용품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식인 김종필  
동무는 주장을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서로 들어온 로동

자들에게 생산공정들을 돌아보

하고 그것을 할수 있는지

그들의 의향을 먼저 물어본다.

그에 맞게 일감을 맡기고 일정

한 기간 일군들이 관심을 돌리

았다.

이렇게 일을 시작하였지만 육

당파는 달리 손에 잘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때에는 일군들이 그들의 작업장을 보

고 기초하여 다른 공정의 일

감을 말해주었다.

그렇게 하니 신임로동자들속

에서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

고 맡은 일에 성과가 나고 급급히

능동들에서 흥미를 찾고

있었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

리는 광장종영원의

70%이상이 고급기능공

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경험해 되었다. 최근년간

군과 그들은 중앙에

서까지 호평받는 새 품질

을 적지 않게 내놓은 비

경의 하나도 바로 광장

기능공대체를 풀른히

꾸려져있는데 있었다.

하ذا고 광장일군들은

기능공양성사업을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해

오고있는가.

새로 임직한 사람들을 적재적

소에 배치하는것이 무엇보다 선

차이라고 이 광장일군들은 말

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있다. 사람들의

생산에 적절 참가한 신임로동

교체되어나갔다. 드디어 정해진

시간에 기적소리높이 훌차는 때

났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마다

에는 200일전투기록장의 한

페이지를 엮은 긴증이 한껏

어려웠다.

어찌 이해만이 아니라, 회자여문으로

조금씩 새어나온 세멘트를

보자 스트립없이 회자에 뛰어들

과 세멘트를 옮겨놓으며 짧은

시간에 옆풀을 수리한 뒤 수리공

과 무일통투와 친화원 티끌

김영립 풍물, 대

대의 선반으로는

가공할수는 없더니

단조당지부분을

기말한 쪽상으로

가공해낸 선반공

김영섭, 겸차원 풍물등... 그나마

이를 계기로는 언제나

기적소리높이 훌차는 때

났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마다

에는 200일전투기록장의 한

페이지를 엮은 긴증이 한껏

어려웠다.

어찌 이해만이 아니라, 회자여문으로

조금씩 새어나온 세멘트를

보자 스트립없이 회자에 뛰어들

과 세멘트를 옮겨놓으며 짧은

시간에 옆풀을 수리한 뒤 수리공

과 무일통투와 친화원 티끌

김영립 풍물, 대

대의 선반으로는

가공할수는 없더니

단조당지부분을

기말한 쪽상으로

가공해낸 선반공

김영립 풍물, 대

대의 선반으로는

가공할수는 없더니

단조당지부분을

기말한 쪽상으로

가공해낸 선반공

김영립 풍물, 대

대의 선반으로는

가공할수는 없더니

단조당지부분을

기말한 쪽상으로

가공해낸 선반공

김영립 풍물, 대

대의 선반으로는

가공할수는 없더니

단조당지부분을

기말한 쪽상으로

가공해낸 선반공

김영립 풍물, 대

대의 선반으로는

가공할수는 없더니

단조당지부분을

기말한 쪽상으로

가공해낸 선반공

김영립 풍물, 대

대의 선반으로는

가공할수는 없더니

단조당지부분을

기말한 쪽상으로

가공해낸 선반공

김영립 풍물, 대

대의 선반으로는

가공할수는 없더니

단조당지부분을

기말한 쪽상으로

가공해낸 선반공

김영립 풍물, 대

대의 선반으로는

가공할수는 없더니

단조당지부분을

기말한 쪽상으로

가공해낸 선반공

김영립 풍물, 대

대의 선반으로는





